

동네문화카페



열린시장 열린군산

배움-일자리-소득증대 효과 '톡톡'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모범사례로 전국이 주목했다!

지난 2018년부터 민선7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온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이 전국 183개 평생학습 도시가 모인 교육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분야 평가에서 교육부장관상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동네상가와 비영리시설 공간(아파트주민실 및 직장 회의실) 등을 학습장소로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고 평생학습 일상화 및 학습동아리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
제296호

11

발행일 2021.11.25.
발행인 군산시장
발행처 군산시청 공보담당관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T.063-454-2092

블 로 그 <http://blog.naver.com/gunsanpr>
페 이 스 북 <http://www.facebook.com/gunsancity>
인 스타 그 램 <http://instagram.com/gunsancity>
홈 페이지 <http://www.gunsan.go.kr>

2 시정

전국 최초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공공배달업 배달의 명수 대한민국 좋은 정책으로 소개되며 전국 '호평'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는 전국 공공배달업의 모델이 된 '배달의 명수'가 소개되며 눈길을 끌었다. 지방정부 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추진되는 금번 대회를 통해 군산시가 시민들과 함께 핵심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도시로서의 큰 틀을 인정받은 셈이다. 시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토대가 될 태양광 발전사업과 모바일 유통환경 구축으로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의 근간이 될 배달의 명수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소멸의 새로운 해결책이 되도록 업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획예산과 (☎454-2303)

군산시, 올 들어 14개사 9,426억원 유치 투자협약 체결 '경제활성화 밑거름'

군산시가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4개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확충했다. 이로써 총 9,426억원의 투자와 1,5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입지별로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새만금산단 555,607㎡에 11개사, 군산2산단 32,099㎡에 2개사, 임피농공단지 24,413㎡ 1개사다. 대규모 투자기업으로는 (주)천보비엘에스가 5천억원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전해질을 생산하고, (주)유니테스트가 1천2백여원을 투자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생산하게 된다.

기타 주요 유치 기업으로는 이피캠텍(주), (주)평강BIM, (주)세아씨엠, 제일폴리캠, 에스씨, 뉴인텍, 디엘(주) 등이다.

시는 기업 유치가 지역의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를 견인하도록 끝까지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혁신과 (☎454-2733)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착공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지난 11월 5일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착공식이 열렸다.

이번 사업은 국내 상용차산업의 중심지인 새만금지역에 직선로와 곡선로 함께 갖춘 국내 최장의 21km 주행로와 자율주행차량 등 실증장비 3종, 시험평가법, 국제표준 등 기업을 지원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시로부터 200억원을 지원받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고속 자율주행 시험 및 검증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상용차 주행 실증 기반이 마련되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오늘의 착공식을 계기로 군산시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자동차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업혁신과 (☎454-2763)

군산 k-그린뉴딜정책 아·태도시 특별정상회의에 서다



군산시가 10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주최하고 14개국 38개시가 참석한 '아시아·태평양도시 특별정상회의'에서 '군산 K-그린뉴딜을 말한다'라는 발표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위기에서 탄생한 도시의 가능성'이란 특별정상회의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군산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친환경 미래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K-그린뉴딜 1번지로 재도약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잇따른 악재에도 발 빠른 산업전환과 '좌절'이 아닌 '희망'을 택한 시민들이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히 'RE100 국가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으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군산상생형일자리'를 통해 고용창출과 함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의 시 주요 정책을 소개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아시아·태평양도시 특별정상회의는 아·태지역 지방정부 간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정보 공유 및 도시발전 네트워크 조성으로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창설된 국제회의체다.

기획예산과 (☎454-2624)

“단계적 일상회복, 생활과 방역 균형 이루는 것”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시민 삶 각 분야의 피로감이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 중 최고는 아니어도
 타 지자체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과를 거둔 여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니
 치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 듯 여겨집니다.
 대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예전과는 다른 상황을 잘 감수하고 인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활동 증가와 대면행사 시작 등의 영향으로
 감염 예방 습관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는 자주
 △증상이 발생하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즉시 검사 △손 씻기 철저 등의
 방역수칙은 지속적으로 생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집중하느라
 시민과 함께하는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지난 시간이 못내 아쉽고 서운합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로의 진정한 복귀를 위해 방역과 더불어
 사회·경제 활력을 위한 행정업무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으로 지역을 지켜온 시민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장 **강 임훈** 올림



4 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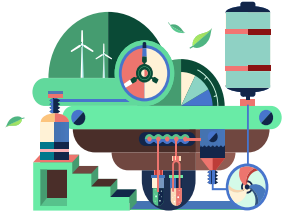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예타대상사업 확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정부(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군산항 서측에 국비 4,287억원을 들여 호안 4,170m, 가호안 1,160m, 투기장 21.5만㎡(65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180만㎡의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의 특성상 토사 퇴적에 따른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사업은 군산항의 생명과 같아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지연될 경우 항로 준설공사에 차질이 생겨 항만 경쟁력의 퇴보는 물론 자칫 국가 무역항으로서 기능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번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제2투기장 조성사업의 시작이며 시는 예타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제2준설토 투기장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해양과 (☎454-2792)



군산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군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민선7기 내 3년 연속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사업은 시내 동 지역 약 686세대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를 설치·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8억원 규모로 국비 29억원을 지원받아 오는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공모사업에 전국 135개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했으며, 군산은 지자체장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을 전략적으로 어필해 우수한 성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전년도에도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서남부지역 564세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비 48억원으로는 동부 지역 618세대에 설비를 설치 중에 있다.

새만금에너지과 (☎454-4422)

배달의 명수로 축산물 사면 이력정보 한눈에 본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및 (주)셀바이오(대표 변형완)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배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배달의명수 내 축산물 도축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이력정보 조회기능을 적용해 축산물의 바른 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정보를 제공하고 공공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배달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배달의명수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신뢰를 주며 소비자와 가맹점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과 (☎454-2692)

군산대 교차로진입 램프 개통



잡은 신호대기와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주던 군산대교차로 새만금북로 진입이 앞으로는 원활해지게 됐다.

지난 2002년 개통된 국도 21호선의 군산대 IC는 그동안 시가지로의 연결과 새만금 및

산업단지,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요충지이나 교차 방식이 불완전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불편을 야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군산대 IC의 불완전 교차로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군산대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 10월 공사를 완료했다.

앞으로 옥구읍 방향에서 새만금북로 우회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변경돼 운전자의 신호 대기시간 감소, 교차로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출퇴근 시간과 물동량 운송시간 단축 등으로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과 (☎454-3592)

초·중·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호응'



군산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과 심신 단련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올해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05명의 학생들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일반학생의 경우 강습비의 70%,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학생 등에겐 강습비의 100%를 지원해 부담 없이 승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현재 내년 사업추진을 준비 중이며, 사업 신청은 12월 중 관내 학교를 통하여 접수 받는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과 저소득 가정 등 소외계층에서도 부담 없이 승마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축산과 (☎454-2862)

5 시정

문화재 가치창출과 발전에 기여한 '노력' 인정받았다!



군산시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2022년 문화재 활용사업 중 5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됐다. 지역문화재활용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순수 문화재 활용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재 야행사업 △생생문화재사업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ICT 실감콘텐츠개발지원사업 등으로 5개분야 6개 사업이다. 군산시는 2014년부터 다양한 지역 문화재활용사업에 꾸준히 선정돼 우리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재 가치창출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타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화예술과 ☎454-3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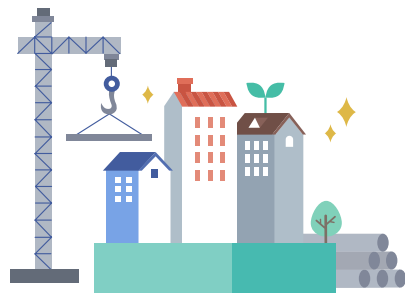
중앙동 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우뚝'



군산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사례공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비즈니스분야)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우체통거리 사례공유 발표대회 최우수기관 표창에 이은 2년 연속 쾌거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중앙동, 해신동, 산북동 등) 군산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서로 소통·공유·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마중물사업 중 하나인 '짜보스토리1899' 복합커뮤니티조성사업(구.수협동부어판장리모델링)을 주제로 대회에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본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17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까지 짜보선창, 구 수협, 한국선급, 한화부지, 신영시장 등 핵심 유휴부지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공동체 활력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454-3545

군산시, 방치된 빈집 대상 종합정비계획 수립



군산시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소유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방치되는 빈집은 주변 경관 훼손과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위협, 위생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산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위탁해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군산지역 빈집은 총 2,349호로 도심지역 1,322호, 농어촌 지역 1,027호로 나타났다.

빈집은 활용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분류하게 되는데 군산은 2등급 활용형이 826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4등급 철거형 615호로 조사됐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소유주의 자진 철거 유도 외에도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빈집 정책을 담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행정과 ☎454-4243

망해산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



군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망해산 일원 국가지점번호 안내 표지 5점을 신규 설치한다. '국가지점번호'란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산·하천 등 건물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통일된 위치안내 표시 방법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암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53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월영산·대각산, 장군봉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에 총 184점을 설치했다. 올해에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대장봉, 장자도, 망해산 일원에 22개소를 신규 설치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등산로 추락사고 등 만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요 등산로 위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위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며 "만약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등산로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토지정보과 ☎454-3982

군산시 균형발전평가서 우수사례 기관표창 수상



군산시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주관으로 이뤄진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선유도 내부관광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38억을 들여 고군산군도 연육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충 및 선유도해수욕장 진입여건을 개선한 사업으로 '공간 활성화' 부문 우수사례에서 손꼽혔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여, 지난 7월 전국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및 전문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8개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관광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신속한 내부도로 개설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항만해양과 ☎454-2932



군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0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의원발의 9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1건, 의견청취의견 3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과 신영자·박광일·

배형원·김중신·김영자·송미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재)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매년 수익을 출연함에도 이를 감시할 공무원조차 없을 뿐 아니라 푸드프렌 운영 역시 절반 이상 외지에서 구매해 납품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개발용역에 있어 전국 입찰로 할 것을 시의회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며 질타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추경, 2022년 예산안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회기가 올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 신영자 의원

군산에는 인술과 봉사로 유명한 쌍천 이영춘 박사와 군산이 낳은 가천 이길여 박사가 있으며 이들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며 사랑·봉사·인술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군산의 의료인의 성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광일 의원

군산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골목상권 그리고 원도심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고, 거점개발 중심의 사업과 거리조성사업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원도심에 권역별·가로별 테마 등 차별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 배형원 의원

과거와 달리 단순 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과장을 관련 업무 담당관으로 정하여 계선조직체계에 따라 주무관까지 이르는 유기적인 협조체계 방안과 내부 수범사례집을 만들어 공직자 교육 및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군산시 부서간 유연한 협업체제로 업무처리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중신 의원

프로야구 출범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야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주도 서귀포에도 야구 박물관이 있다며 군산에도 야구거리와 군산상고 출신 유명한 야구선수, 그들의 야구용품과 자료들이 많이 있어 야구선수들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군산 야구박물관을 문화시장이나 군산상고 입구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자 의원

모든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관광을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관광은 단순 볼거리·먹거리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을것이라며 지역의 자원을 역사적·교육적·관광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미숙 의원

2021년 10월말 기준 군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9,349세대 1만2,802두이며, 등록대상 추정 두수는 2만5000두로 양육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치료비 가격 차이는 2배~5배 차이가 난다며 ‘동물진료비 사전고지, 진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의료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이 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채널로 시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신속한 정보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시의회는 코로나로 시민과의 직접 대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회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군산시의회 유튜브 방송은 본회의 라이브 스트리밍과 5분 발언 및 시정질문 등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 현장방문 활동 등 다양한 카테고리 구성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군산시의회는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회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과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회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페이스북과 SNS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입법활동 활발... 공부하는 의정상 정립에 앞장

- 시민 복리 증진 및 지원 근거 마련 -

군산시의회 시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1건의 조례 제·개정안 중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가 무려 9건에 달해 공부·연구하는 의정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이다.



김경식 의원 (사 선거구)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행정기관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기 위함.



우중삼 의원 (나 선거구)

우중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및 인재육성 근거마련을 위함.



김중신 의원 (사 선거구)

김중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한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하기 위함이며, 또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군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우월적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함.



송미숙 의원 (비례대표)

송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또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에너지의 소비를 줄여 자원순환 사회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최창호 의원 (바 선거구)

최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안'은 외로움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은 물론 이로 인해 야기 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지해춘 의원 (사 선거구)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지원 조례안'은 재난에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취약 계층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또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에게 해가 되지 않고 제도 안에서 시민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함.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를 받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의견 청취 -

군산시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 및 제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12일까지 15일간 각 읍면동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의견 및 제보를 받습니다.”란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사항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행정사무감사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김영일 부의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의회,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정의로운 평등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

- 군산시의회, 사례 중심의 행정사무기법 등 전문성·능률성 향상 기대 -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지난 11일 소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례중심의 강의에 이어 청렴·4대폭력 예방교육 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정창수 교수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제 지식 및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조사 기법과 예산심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양승희 강사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의 언어와 매너, 연설기법 등 강의를 이뤄졌다.

군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8 리포터소식

11월, 군산을 알다. |

군산의 지명들 (5)

리포터 이수진

1. 양키시장

평화동에 위치한 감도가의 위쪽에 자리한 옷가게들을 양키시장이라 불렀다.

한국전쟁(6·25전쟁)으로 북쪽의 피난민들 일부가 군산에 정착하면서 지금의 군산중앙초등학교·서초등학교·구 공설운동장 등에 임시 수용소가 마련되었다. 이들 실향민중 일부가 군산에 위치한 미군 부대로부터 흘러나온 물품들을 평화동 감도가 근처에서 팔기 시작하면서 양키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고 한다.

2. 동영(東嶺)고개

구 군산경찰서에서 제일은행을 지나 빈해원으로 가는 고개가 있는 이곳에 과거 동령산이 있었다. 지금은 주변의 개발로 인해 산이 깎이어 동령산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군산내항의 축항으로 커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고개를 넘어야만 항구로 갈 수가 있었다.

3. 오룡(五龍)동

서해대를 축으로 한 구릉지대와 둔율동의 일부 지역이 오룡동이다. 오룡은 구룡의 형세가 다섯 마리의 용의 형세를 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용이 있는 곳에는 소(沼)가 있어 물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예로부터 오룡동에는 샘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4. 내초도(內草島)

1914년 행정개편으로 내초도라 하여 옥구군 미면에 편입되어 군산시와 옥구군이 병합되면서 지금의 내초동이 되었다. 내초도는 역사풀이 많아, 풀의 고어(古語)인 새섬 또는 새새섬이라 불리우다 한자어로 풀초(草)자를 써서 초도(草島)로 불리웠다. 내초도는 섬이 안쪽에 위치한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참조 : '군산의 지명유래' 군산문화원편찬]

경암철길 마을

리포터 문정현

1944년 봄 내항에서 북선제지까지 기차가 오가기 시작했다. 일제는 신문용지 생산을 위한 원목 수송선으로 내항에서 군산 화물역을 거쳐 북선제지에 이어지는 철도를 만들었다. 1년을 갖 넘긴 후 광복이 되자, 그들은 몸만 떠나야 했다. 우리의 굴곡진 역사만큼이나 이름도 여러 번 바뀌어 왔다. 고려제지 철도, 세대에 지선, 세풍철도, 페이퍼코리아선. 70년대 이후 철길 주변으로 한 두 집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철길마을이 만들어졌다. 하루에 두 번씩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되면 빨랫줄에 걸려있던 옷가지를 걷고, 기차길에서 뛰어놀던 아이들도 후다닥 집안으로 들어갔다. 하얀 연기를 내뿜고 기적을 울리며 달리던 기차는 2008년에 멈췄다. 시간 여행을 떠나 철길을 걷다 보면 느린 속삭임으로 삶의 추억을 쌓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텃밭을 가로지르며 달리던 기차의 추억이 레일 위에 쏟아져 내린다. 그 길은 멀리서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듯하다.



배달의 명수, 「사장님이 쏜다」 이벤트 '호응'

리포터 고덕자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에 입점에 있는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사장님이 쏜다!」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사장님들이 중개수수료가 절감돼 받은 혜택을 소비자들과 함께하고자 준비한 것으로 이번에 참여한 18개업체에는 행사기간 동안 주문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공짜쿠폰을 제공해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쉽게 당첨이 되지 않은분들도 「사장님이 쏜다!」 2차 행사가 12월에도 계속된다고 하니 꼭 참여하셔서 공짜쿠폰의 행운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배달의 명수앱에서는 할인쿠폰, 무료배달 등의 할인혜택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할인이벤트 및 마트, 로컬푸드 등 입점으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소비자도 소상공인도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따뜻한 군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쿨존 장난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어린이 리포터 진리

안녕하세요! 어린이리포터 진포초등학교 5학년 진리입니다. 저는 하교 후 수학,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에 늦지 않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차도로 건너 뛰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선생님의 주의를 자주 듣지만 학원 시간도 맞춰야하고 학교주변에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차도에서 일부러 장난을 치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에 불쑥 뛰어들어 운전자를 놀라게 하며 즐거워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런 장난을 친구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용감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스쿨존은 어른들과 우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 꼭 지켜야 할 안전 지대입니다. 우리 진포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청소년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청소년 리포터 정민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도 백신접종을 마치고, 이제 내 동생과 나만 남았다. 우리 청소년도 사전예약을 통한 백신접종이 시작됐고, 주변 친구중에는 벌써 맞은 친구도 있다. 선생님께서 접종을 하면 2일간은 쉬면서 이상증세가 있는지 살피라고 하셨다. 다행히도 그동안 우리 가족중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뉴스를 보면 조금 무섭기도 하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공포를 경험했고, 행복했던 일상도 무너졌지만 백신 접종으로 하루 빨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9 읍면동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이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구암동

구암동 부녀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실시

구암동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매년 부녀회 및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구암동 자생단체가 힘을 합쳐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김장은 배추가 아닌 알타리 무우로 직접 담궈 구암동 관내 소외계층 150여 가구에 10Kg 씩 전달할 계획이다.



소룡동

가을 맞이 국화 식재 및 제조작업 진행

소룡동은 가을을 맞아 국화(가을꽃) 900분을 식재하고 인근 화단 제조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재 및 제조작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동아 아파트 삼거리 ~ 소룡사거리 가로변 구간에 가을꽃의 대명사인 국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식재했다.



나운3동

온(溫)세상 나눔 캠페인 실시

나운3동 군산중앙신협(이사장 김행곤)은 취약계층에 전기요 및 김, 식용유, 치약, 쌀국수 등으로 구성된 어부바 박스를 전달해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 넣었다. 신협 온 세상 나눔 캠페인은 매년 겨울맞이로 신협사회공헌재단, 군산중앙신협이 동시 주관 지원하는 캠페인이며, 올 겨울에도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해신동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통한 원스톱 봉사활동 펼쳐

해신동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가을맞이 '찾아가는 이동빨래'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광호)와 연계해 이동빨래차량을 지원받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 주민센터 직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함께 사는 세상"

우리동네 소식



임피면

반찬배달사업 진행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체로 임피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자율방범대 등 6개 자생단체가 힘을 모아 반찬배달사업을 진행중이다. 고독사 위험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32가구를 선정해 동절기 동안 매월 1회 반찬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흥남동

고사리손에 담긴 코로나 19 극복 응원메시지

흥남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소상공인 이웃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주민센터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린터널에 관내 초등학교 3개교(군산남초, 군산풍문초, 전주교대군산부설초)학생 800여명과 흥남어린이집, 흥남동 주민 200여명이 참여하여 응원메시지를 게첨했다.



신평동

사랑나눔 착한가게 '13호점, 14호점' 연이어 탄생

신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나눔 실천에 동참한 관내 사업장 "거목식당(13호점)"과 "한지모던아트(14호점)"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신평동은 코로나 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만 4곳의 착한가게가 사랑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미성동

연탄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군산시 청소대행업체인 (주)서해환경(대표 송재휘) 희망자원봉사단(단장 김상원)은 미성동 서흥마을, 신성마을, 영화동 취약계층 5가구에 연탄 2천7백장(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올해로 16년째 이어진 서해환경 희망자원봉사단의 연탄 나눔은 단원들의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마련돼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전통시장 시장가는 날」 행사안내

- 행사명 : 전통시장 가는 날
 - 추진목적 : 소비촉진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소비 진작 행사
 - 응모방법 : 2021. 11. 28.(일)에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당일 구매영수증 (합산3만원 이상)으로 응모
 - 응모기간 : 2021. 11. 28. 00:00 ~ 12. 4. 24:00
 - 대상시장 :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명산시장, 수산물센터
 - 행사내용 : 전통시장 구매고객 대상 영수증 이벤트 (경품 : 청소기, 온누리상품권)
- * 당일 구매 영수증 사진 시장애플(www.sijangae.or.kr)에 업로드 경품 응모
* 반드시 영수증의 구매일이 11월 28일 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 (☎454-2702)



2021년 귀농귀촌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지원 신청 안내

- 사업명 :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사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 신청방법 :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방문접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농업인회관 2층
 - 사업내용 : 농촌지역 내 매매 또는 임대 가능한 주택·농지 정보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수당 지급(건당 100천원)
 - 구비서류 :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 참조
- 군산시귀농귀촌지원센터 (☎453-0788)



희망 2022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모금

- 기간 : 2021년 12월 1일 ~ 2022년 1월 31일
- 참여대상 : 개인, 기업체, 기관, 단체 등 전 시민
- 주최 :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성금접수처 : 군산시청(복지정책과),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 454-3071~3(군산시청 복지정책과)

정치후원금 기부방법 안내

세상을 바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에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기탁한도

- 1회 1만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후원금이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원까지
-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 를 검색하세요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 (☎ 466-8471)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재개 안내

- 재개일자 : 2021. 10. 25.(월)부터
- 상담내용 :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
- 운영장소 : 종합민원실 민원센터 내 상담실(시청 1층)



구분	상 담 내 용	상담시간
법률	인권, 권리, 의무 등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둘째·넷째 월요일 17:00~18:00
법무	건축, 등기, 전세 등 법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매주 화요일 16:00~17:00
소비자고발	카드결제, 물건구입, 계약 등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매주 수요일 16:00~17:00
건축법률	건축 가능 여부, 인허가 절차 및 민원처리과정 상담	매주 수요일 13:00~16:00
세무·회계	국세, 지방세, 상속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매주 목요일 16:00~17:00

열린민원과 (☎454-2562)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안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미접종자	2차 미접종자	
		접종간격 미경과 시	접종간격 경과시
대상	18세 이상 성인 중 1차접종 미접종자	1차접종완료자 중 백신별 접종간격 범위* 내의 대상자 1차 접종 후 화이자 3~6주, 모더나 4~6주, 아스트라제네카 4~12주	1차접종 완료자 중 백신별 접종간격 최대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
접종방법	① 현장방문 - 별도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접종 ② 잔여백신 - SNS(네이버, 카카오)당일 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신청 ③ 예비명단 - 의료기관 문의 후 예비명단에 올려 잔여백신 접종 * 접종간격 미경과 대상자는 사전예약 누리집에서도 접종예약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460-0029)

인플루엔자(독감) 대상자별 무료 접종



사업대상 및 일정

구분	접종대상자	접종기간	접종장소
생후 6개월 ~ 만13세 어린이	2회접종 대상자 (생애 첫 접종자)	'21. 9. 14.~'22. 4. 30.	지정 의료기관
	1회접종 대상자 (과거 접종력 2회이상)	'21. 10. 14.~'22. 2. 28.	
임신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제시자	'21. 9. 14.~'22. 4. 30.	지정 의료기관, 군산시보건소
어르신	만75세 이상 ('46.12.31. 이전 출생)	'21. 10. 12.~'22. 2. 28.	지정 의료기관, 군산시보건소
	만70~74세 ('47.01.01.~'51.12.31. 출생)	'21. 10. 18.~'22. 2. 28.	
	만65~69세 ('52.01.01.~'56.12.31. 출생)	'21. 10. 21.~'22. 2. 28.	
우선접종 (군산시민)	국가유공자 본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심한장애(구-1·2·3급),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서류 제시자	'21. 10. 25.~약품소진시 까지	군산시보건소

보건소 (☎460-0014)



사랑해 동생아



파마했어요 (집콕생활)



우리 얼굴은 스케치북



청암산 하늘을 바라보며

감따는 가족



동생이 생겼어요

아빠 비행기가 제일 재밌어요

어딜가든 단체손님

2021 군산시 슬기로운 가족생활 사진공모전 수상작



무료급식도시락에 올려진 맛있는 반찬, 필사시화엽서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당선작 군산에 살기 좋군~

<전문 생략>

‘사람이 밥만 먹고 사나. 밥과 함께 더 맛난 문학(시)도 먹고 살아야지’, ‘사랑의 글, 희망의 글, 용기의 글을 읽으면 더욱더 살아가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일명 “문화나눔운동 필사시화엽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약 4,000여장의 시화엽서가 전달됐다.

필사시화엽서와 도시락을 받아든 분들의 반응은 이랬다. “이게 뭐여? 시가 뭐여? 누가 이렇게 이쁘게 썼단가? 직접 손으로 쓴 거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사와 함께 이번에는 어떤 글인가를 궁금해한다.

아름다운 글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글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다. 시 필사가 비록 나에게겐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쓴 엽서의 글 하나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 더불어, 군산의 시민들 누구나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길 소망한다.



※ 본 작품은 군산시민 사진 및 생활수기 공모전 <군산에 살기 좋군~> 선정작이며 원문은 군산시 인구정책 페이스북(gunsanin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및 금강권 전시관 주요 전시 일정

오토바이 채금석

기간 : 21. 6. 22.~11. 30
 장소 : 박물관 기획전시실
 내용 : 근대역사박물관 기획전시

홍삼식 개인전

기간 : 21. 11. 2.~12. 31.
 장소 :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내용 : 서양화

故하반영 화백 특별전

기간 : 21. 11. 23.~22. 1. 9.
 장소 : 장미갤러리(2층)
 내용 : 故하반영 화백 기증작품

이용휘 화백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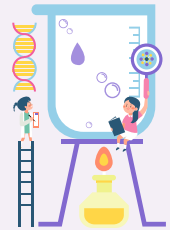
기간 : 21. 11. 9.~22. 2. 13.
 장소 : 근대미술관
 내용 : 故이용휘 화백 기증작품

박물관관리과 (☎454-7873)

공연 군산어린이공연장 12월 기획공연



- 공연명 : 사이언스 콘서트 “신들의 실험실”
- 공연일정 : 2021. 12. 4.(토) 14시, 16시 - 2회공연
- 공연내용 : 그리스 로마 신화와 과학 원리를 접목한 융복합 공연
- 관람대상 : 7세 이상 아동 권장(보호자 동반)
- 관람료 : 무료 공연
- 관람인원 : 회당 200명
 - 통합예약 시스템 예매 인원 : 175명, 현장예매 가능인원 : 25명
- * 군산시통합예약시스템(www.gunsan.go.kr/event) : 1인 4명 신청제한
- 사전예약 오픈일시 : 2021. 11. 25. (목) 10:00 [예매 175석 / 무료]



아동청소년과 (☎454-5743)

특강 시립도서관 부모 인문학 특강



- 운영기간 : 2021. 12. 9. (목) 11:00
- 대상 : 군산시민
- 장소 :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지하)
- 강연명 : 우리 아이 문해력, 어떻게 키워줄 것인가?
- 주제 : 문해력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미래인재에 적합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
- 강사 : 김윤정(아이중심 독서교육연구소 책나들이 대표) [저서]「내 아이를 망치는 위험한 칭찬(2011)」, 「놀이의 반란(2013)」, 「독서록 전쟁(2015)」, 「EBS 당신의 문해력(2021)」, 「공부머리 만드는 초등 문해력 수업(2021)」
- 운영방법 : 현장참여 80명 및 군산시 공식 유튜브



시립도서관관리과 (☎454-5632)

*상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경포천길 걷고,



군산시 경포천 하천을 따라 걷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이 조성 완료됐다. '경포천 서래숲길 조성사업'은 18억원이 투자돼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산책 이용도가 높은 미장교에서 송정교까지 1.6km(양방향 3.2km) 구간에 숲길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메타세쿼이아 등 큰 나무를 2열 식재해 미리 그늘을 제공하고 왕벚나무, 이팝나무, 꽃댕강 등 화목류와 다년생 초화류 및 상록성의 홍가시나무, 써니스마라그, 에메랄드그린 등 23종 2만5천여본을 식재했다. 또한 각 교량마다 자동 관수 꽃걸이 화분을 설치해 계절별로 아름다운 색깔을 갖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수목 식재로 인해 협소해진 인도는 데크를 연결해 확장하고 주요 지점에 관망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등 경포천을 시민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힐링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시는 경포천 서래숲길의 녹지축을 경암지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도시숲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산림복지과 (☎454-2953)

밤에는 신흥숲으로...



월명공원 자락에 위치해 근대문화도시·수시탑·월명산전망대 등을 연결하는 '신흥 도시숲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완료됐다. 신흥 도시숲 공원은 지난 2004년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도심공원으로 조성된 곳으로, 기존 경사지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활용해 몽환적이면서 아늑한 빛 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볼라드조명과 수목 투사등, 스텝등 등을 통해 어두웠던 산책길을 밝히고, 보름달 조명과 꽃조명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달빔치 포토존을 설치해 신흥 도시숲을 더욱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야간경관이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근대마을과 수시탑, 신축 예정인 월명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야간경관축이 형성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특히 새로운 야간 볼거리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 및 야간경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경관과 (☎454-4303)